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8호 [주제 제26012호] 주제 107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확대회의 지도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
회와 당 중앙 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 회
의 정신을 높이 받들
고 영웅 조선의 강용
한 기상을 힘 있게
펼치며 혁명의 새로
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 공격 전을
파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
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군사활동의 기본방
향과 방도들에 대하
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군이 당 중앙
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무적의 총창
으로 둔튼히 보위
하고 밀음직하게
담보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조국보위
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파 군종, 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 무력기관 책임일군
들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이 참가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적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조직적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군사
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
명,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임명할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한 문제, 군인생활을 개선하는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업수행정형에 대하여 분석총화
하시였으며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혁명의 전위대오,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앞으로도 당파

수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래를 영원히 고수하고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애국헌신과 집단적혁신으로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오리

증송의 기적소리에 비친 뜨거운 마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주조직장로동계급

사람들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주조직장로동계급을 두고 혼자집단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회차생산과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생산에 최우수에게 수행해온 이들은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대당하고 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해 직장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를 찾아주시었습니다. 일터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높은 생산성으로 빛내여 가려는 것은 우리 직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입을 하고 또 해도 성자지 않아 그들의 남다른 일속심의 밀바탕에는 바로 이런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는 블름을 들자면 비단 어려워하면서도 수령님들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올해 이들의 첫 전주는 능률 높은 중주파유도로설치작업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족한것도 많은 조건에서 여리다운 결의와 헌신으로 설치작업은 시작부터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로설치작업을 위한 작업대제작을

그러나 딸린 과정을 부조전

수행하려는 직장로동계급의 열

의는 하나같았다.

직장현장에서 격식없이 진행된 종업원협의회에서 자리를 차지한 풍랑련합임원의 조

형공 김영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운영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차량수리대활동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전선수송에 기여하였고 당시의 뜻을 담보하고 6·10·100차들을 비롯한 중장회차들을 광

광 생산하여 나라의 철도운수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선두에서

로동자들의 안색은 밝지 못하였다. 제작면에 생긴 계

우리가 알기로는 높은 청진기

에 청진기로는 높은 청진기로는

제작에 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내여 가려는 것은 우리

직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

음입니다.»

입을 하고 또 해도 성자지 않

아하는 그들의 남다른 일속심의 밀바탕에는 바로 이런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는

블름을 들자면 비단 어려워

하면서 조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올해 이들의 첫 전주는 능률

높은 중주파유도로설치작업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족한것도 많은 조건에서 여리다운 결의와 헌신으로 설치작업은 시작부터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로설치작업을 위한 작업대제작을

그러나 딸린 과정을 부조전

수행하려는 직장로동계급의 열

의는 하나같았다.

직장현장에서 격식없이 진행된 종업원협의회에서 자리를 차지한 풍랑련합임원의 조

형공 김영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운영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차량수리대활동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전선수송에 기여하였고 당시의 뜻을 담보하고 6·10·100차들을 비롯한 중장회차들을 광

광 생산하여 나라의 철도운수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선두에서

로동자들의 안색은 밝지 못하였다. 제작면에 생긴 계

우리가 알기로는 높은 청진기

에 청진기로는 높은 청진기로는

제작에 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내여 가려는 것은 우리

직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

음입니다.»

입을 하고 또 해도 성자지 않

아하는 그들의 남다른 일속심의 밀바탕에는 바로 이런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는

블름을 들자면 비단 어려워

하면서 조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올해 이들의 첫 전주는 능률

높은 중주파유도로설치작업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족한것도 많은 조건에서 여

리다운 결의와 헌신으로 설치

작업은 결의와 헌신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로설치작업을 위한 작업대제작을

그러나 딸린 과정을 부조전

수행하려는 직장로동계급의 열

의는 하나같았다.

직장현장에서 격식없이 진행된 종업원협의회에서 자리를 차지한 풍랑련합임원의 조

형공 김영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운영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차량수리대활동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전선수송에

기여하였고 당시의 뜻을 담보하고 6·10·100차들을 비롯한 중장회차들을 광

광 생산하여 나라의 철도운수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선두에서

로동자들의 안색은 밝지 못하였다. 제작면에 생긴 계

우리가 알기로는 높은 청진기

에 청진기로는 높은 청진기로는

제작에 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내여 가려는 것은 우리

직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

음입니다.»

입을 하고 또 해도 성자지 않

아하는 그들의 남다른 일속심의 밀바탕에는 바로 이런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는

블름을 들자면 비단 어려워

하면서 조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올해 이들의 첫 전주는 능률

높은 중주파유도로설치작업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족한것도 많은 조건에서 여

리다운 결의와 헌신으로 설치

작업은 결의와 헌신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로설치작업을 위한 작업대제작을

그러나 딸린 과정을 부조전

수행하려는 직장로동계급의 열

의는 하나같았다.

직장현장에서 격식없이 진행된 종업원협의회에서 자리를 차지한 풍랑련합임원의 조

형공 김영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운영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차량수리대활동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전선수송에

기여하였고 당시의 뜻을 담보하고 6·10·100차들을 비롯한 중장회차들을 광

광 생산하여 나라의 철도운수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선두에서

로동자들의 안색은 밝지 못하였다. 제작면에 생긴 계

우리가 알기로는 높은 청진기

에 청진기로는 높은 청진기로는

제작에 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내여 가려는 것은 우리

직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

음입니다.»

입을 하고 또 해도 성자지 않

아하는 그들의 남다른 일속심의 밀바탕에는 바로 이런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는

블름을 들자면 비단 어려워

하면서 조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올해 이들의 첫 전주는 능률

높은 중주파유도로설치작업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족한것도 많은 조건에서 여

리다운 결의와 헌신으로 설치

작업은 결의와 헌신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로설치작업을 위한 작업대제작을

그러나 딸린 과정을 부조전

수행하려는 직장로동계급의 열

의는 하나같았다.

직장현장에서 격식없이 진행된 종업원협의회에서 자리를 차지한 풍랑련합임원의 조

형공 김영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운영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차량수리대활동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전선수송에

기여하였고 당시의 뜻을 담보하고 6·10·100차들을 비롯한 중장회차들을 광

제국주의의 심리모략전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지주적인 나라들을 침복하기 위해 힘의 정체과 함께 교활한 심리모략전에 매달리고 있다. 금전을 통한 매수작전, 고도기술무기기에 대한 선전공세 등을 걸어온다. 그리고 전시에 자들이 대 한 환상과 광포로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인민들의 사상을 면질시켜 반제지주적인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심리모략전을 것 부지기 대며 저항을 포기할것을 요구하는 수많은 전화와 전자우편들을 보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정주의, 평화주의에 물들고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떠나게 되었다. 종당에는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것을 눈에 띄게 되었고 저항하기 만 하였다. 자본주의가 부귀되었으며 인민생활이 도란에 빠지고 온갖 사회학파 베풀려는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밀려들게 되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위업의 성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두황변 절차가 된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강하게 대처해나갈것을 실질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념이 혼들리면 반드시 편한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견디는 나라는 군대와 인민이 지닌 신념과 의지를 헤쳐버리기 위해 심리모략전을 벌린다.

20세기 말에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다. 이렇게 편한 것은 그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공격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맹진시키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외교와 경제력, 군사력, 사상문화와 과학기술 등이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심을 교란시키는데 충동되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물질적부족을 이유로 한정화를 하여 선전하는 한편 군사비증강, 대량살상 무기들의 개발과 배비, 침략적인 군사동맹의 확대 강화와 굴물없는 합동군사연습 등을 통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광포를 조성하였다.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심리모략전을 것 부지기 위한 신념교양을 걸어 전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정주의, 평화주의에 물들고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떠나게 되었다. 종당에는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것을 눈에 띄게 되었고 저항하기 만 하였다. 자본주의가 부귀되었으며 인민생활이 도란에 빠지고 온갖 사회학파 베풀려는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밀려들게 되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위업의 성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두황변 절차가 된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강하게 대처해나갈것을 실질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념이 혼들리면 반드시 편한다. 이것

은 역사의 교훈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견디는 나라는 군대와 인민이 지닌 신념과 의지를 헤쳐버리기 위해 심리모략전을 벌린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정주의, 평화주의에 물들고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떠나게 되었다. 종당에는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것을 눈에 띄게 되었고 저항하기 만 하였다. 자본주의가 부귀되었으며 인민생활이 도란에 빠지고 온갖 사회학파 베풀려는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밀려들게 되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위업의 성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두황변 절차가 된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강하게 대처해나갈것을 실질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념이 혼들리면 반드시 편한다. 이것

은 역사의 대결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적인 활동을 누릴수 있는 걸,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걸은 오직 굳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물까지 맞서싸우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정책, 힘의 정체

은 파산의 운명을 안고 있다. 이에 절경한 제국주의자들은 심리모략전에 운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비행하고 악랄한 심리모략전을

벌두시는 것은 나라이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세계자주화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군대와 인민은 신념의 강자로 키워야 한다.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강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겁을 먹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이 악랄해 질수록 우리 나라는 사상사업의 열

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역풍에도 끄떡

없는 주체의 강으로 그 위용을 펼치고

있던 것은 우리 군대와 민족의 신념

이 휴戚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혁명

사상, 주체사상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영위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과 혁신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민족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심리

모략전에 드는다.

우리 군대와 민족은 위대한 당의 두리

에 더욱 굳게 풍성한 제국주의의 악랄한

심리모략전과 반동적사상공세를 파악해

것을 향해 저주시며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라 명 생

남조선단체들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

남조선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5일 민중공동행동과 『평생전쟁』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포하였다.

방일인들은 식민지지역사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미군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미령박 『정권』이 추진하고



단평망조가 드는 반역당

6. 13지방자치제선거는 눈앞에 두고 자유한국당·비례의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칠 정도로 남조선강원도 동해시에서 무려 980여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무리로 탈당을 신청한 것이다.

그들의 탈당리유는 단 한 가지 박근혜도 가 한 해되고 민심의 침울을 맛았는데도 거기에서 표를 풀지 않고 있는 당상충부의 처자에 대한 실망이다.

다른 때도 아니고 선거가 당장 박근혜에 시집단립당신정이 떨어왔으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미분분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스스로 빚어야 죄이다.

박근혜여도 민심을 짓밟고 민족을 반역한 죄악으로 하여 한반도지도 한해가 넘었는데 흥

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우두머리를

아직도 제국주의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북남판

제개선과 통일에 대한 호흡을 예고하였다.

날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이런 얼

간당동이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이라는 난파선

에 계속 날아있다가는 성난 민심의 파도에 삼키

운것은 불보듯 뻔한 미치이이다. 그러니 절단립당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엎어진 통지에는 성한 일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살길을 염두에 놓고 주제넘은 티아이는 『자유한국당』의 미령박 『정권』에 대한 헌마니 헌마니 하면서

는 헌마니 헌마니 죽이오. 그리고 헌마니

는 헌마니 헌마니 죽이오. 그리고 헌마니